

케이스탯 2022년 3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여론 증가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견고한 우위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않는다’ 다시 상승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큰 폭 상승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적 전망 상승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감소
- _ 부동산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상승세 꺾여
- _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상승세

■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최고치 88%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3% vs ‘없다’ 47%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4%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3월 11일(금) ~ 3월 1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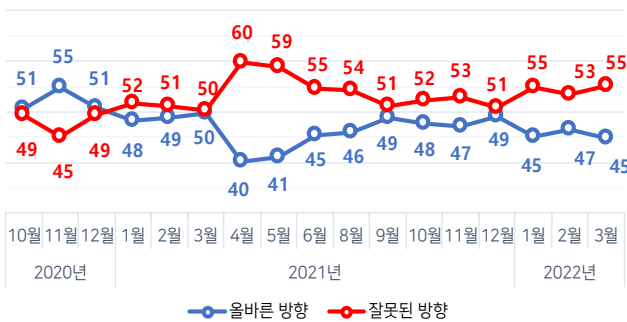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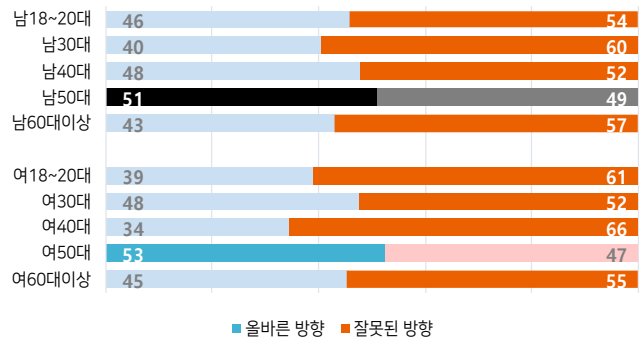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하며, 긍·부정 평가 격차가 지난 1월 수준인 10%p로 벌어짐
 - 22년 3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55% vs '잘못된 방향' 45%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TK △보수층 △자영업층 등임
-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50대 △충청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한편,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50대 △호남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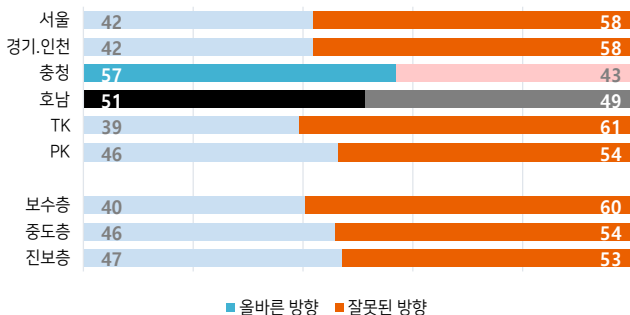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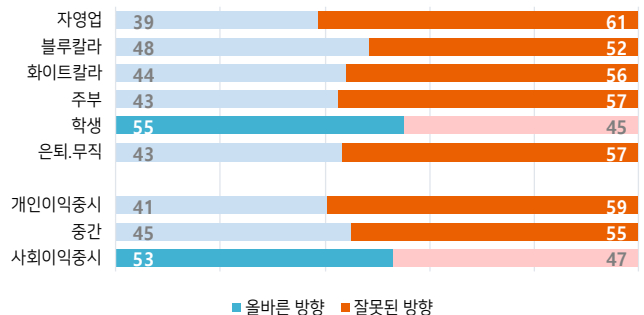
2022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단위:%)



2022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2022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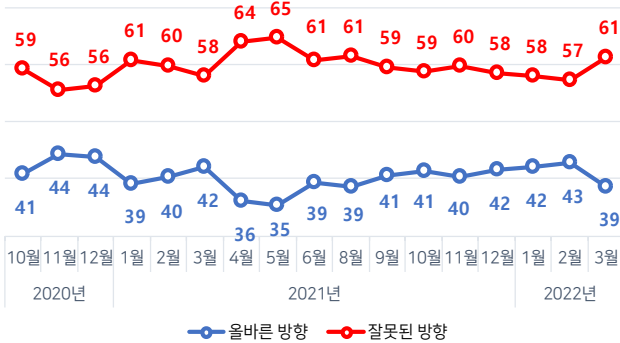
Kstat Point

- ☑ 3월 초,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번 조사는 대선 이후인 11일~13일 동안 진행됨에 따라 대선 결과가 여론에 미친 영향이 큼
 - :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대, 호남, 진보층을 중심으로 부정평가가 증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인 보수층과 상대적 반여 성향층인 남자 20대 등의 부정평가가 감소했음
 - : 제20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최소 투표 차로 승패가 갈린 선거였던 만큼 국민 여론이 이전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며 부정적 여론이 상승한 점이 주목됨
- ☑ 4월 지표는 현 정부 국정 마무리 및 새 정부 출범 과정, 코로나 방역 및 손실보상책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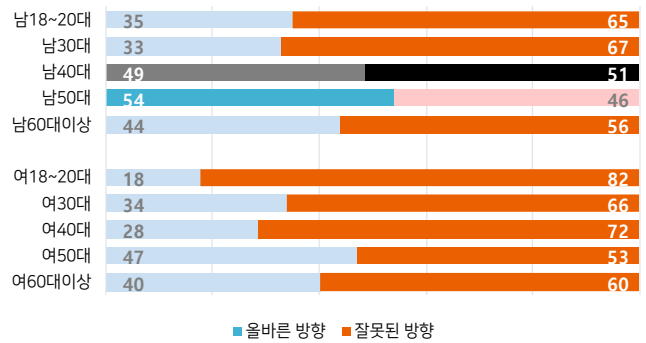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여론 증가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 상위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6개월 중 '잘못된 방향' 응답이 가장 높았음
 - 2022년 3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39% vs '잘못된 방향' 61%로 2021년 6월, 8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주부,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에 그쳤음
- 한편,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40대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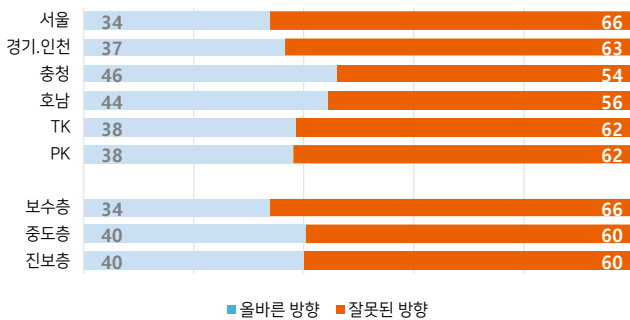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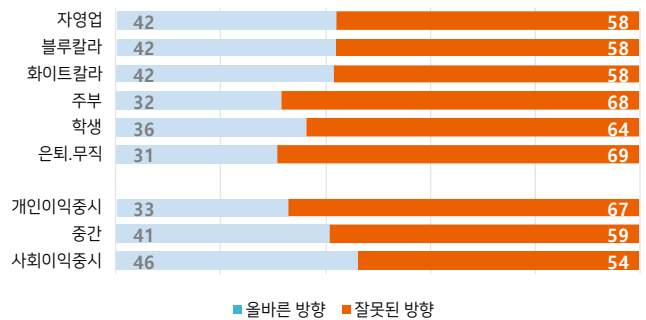
2022년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2022년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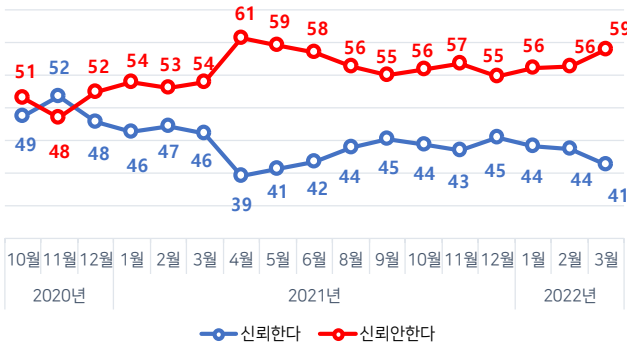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해 5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약 10개월 만에 꺾임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압력 지속 등으로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OECD, IMF 등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에 대한 심리가 위축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 한편, 우리나라 경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에서 증가하고, 보수층에서는 감소한 대목은 대선 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변화에 대한 예상이 국민여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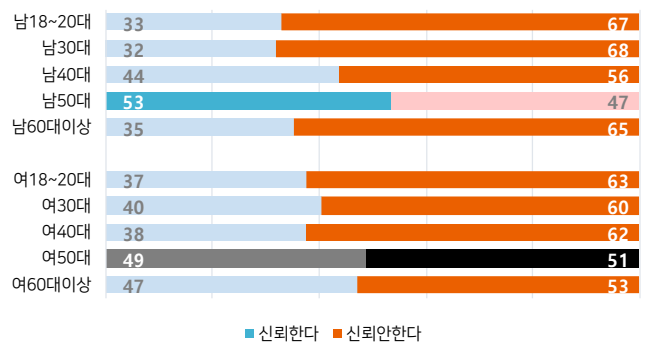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견고한 우위

- 정부를 '신뢰 안한다'는 여론은 상승하고, '신뢰한다'는 여론이 하락하며 긍·부정 여론 격차가 18%p로 벌어짐
 - 2022년 3월 정부 신뢰도는 41%로, 지난해 8월 이후 44%선을 유지하던 흐름이 꺾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보수층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한편, 두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여자 50대 △호남 등으로 나타남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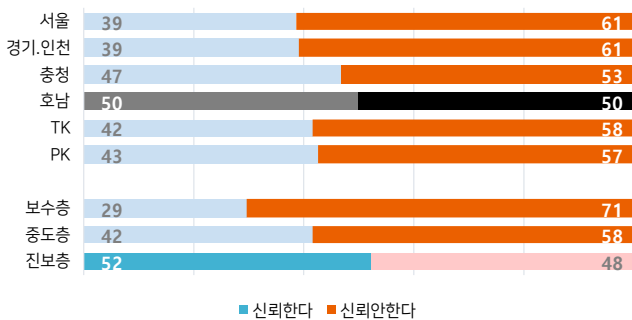


2022년 3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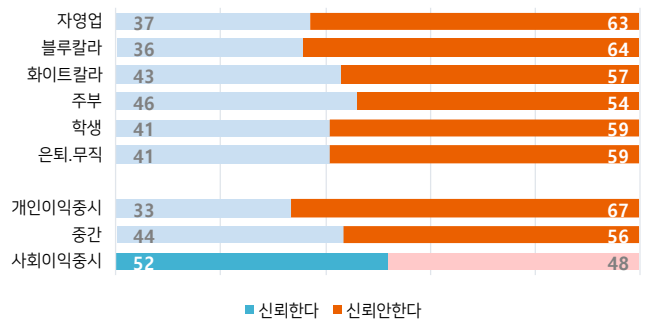
2022년 3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2022년 3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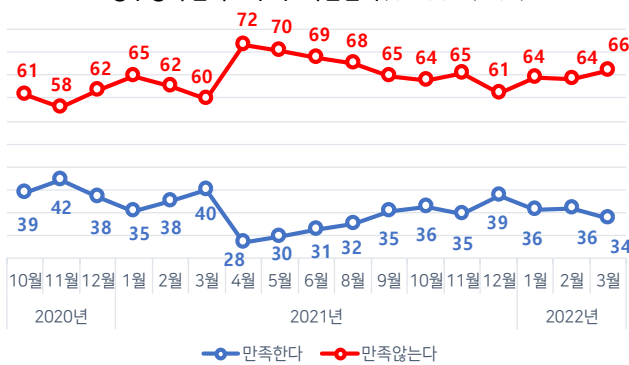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 국민여론 또한 이번 대선 결과와 연계되어 나타남
 - :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 중심으로 현 정부의 신뢰도가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지지세가 약화된 것으로 확인됨
 - :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를 띄우는 등 당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 경쟁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부 신뢰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4월은 대선 열기가 가라앉은 이후의 시점으로 신뢰도 40%선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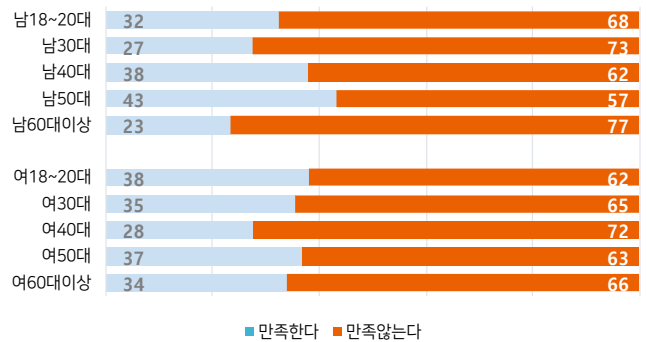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않는다' 다시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하향세를 보인 정책 불만족도가 올 1월을 기점으로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임
 - 2022년 3월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월보다 2%p 하락한 34%를 기록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40대 △서울 △보수층 △블루칼라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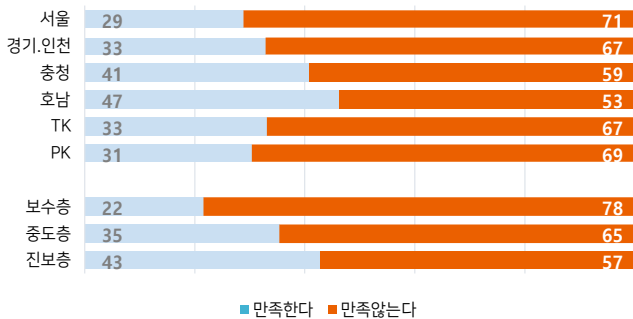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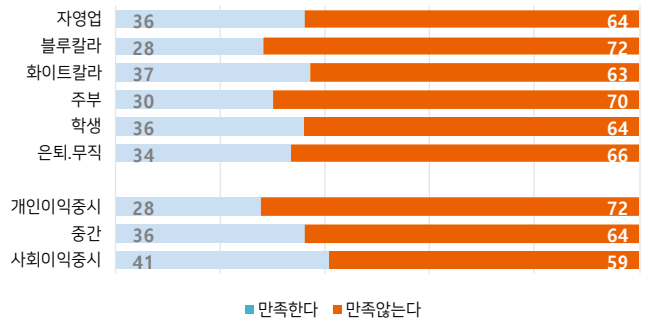
2022년 3월 정부정책 만족도: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3월 정부정책 만족도: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2022년 3월 정부정책 만족도: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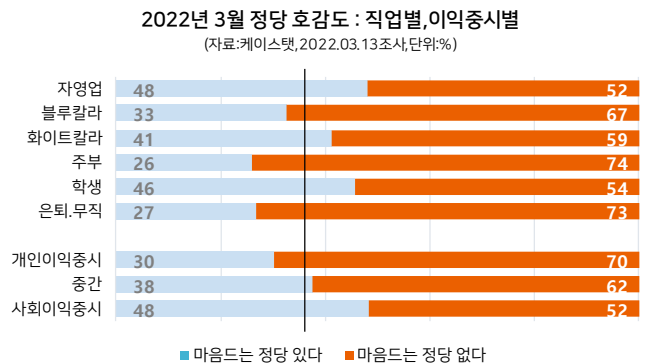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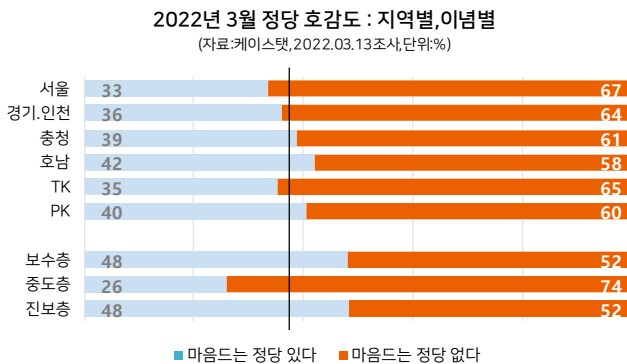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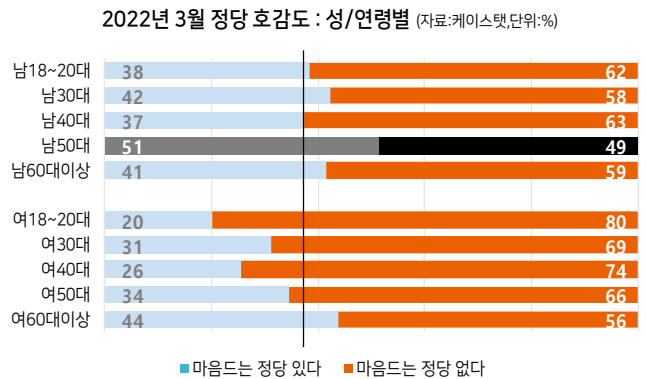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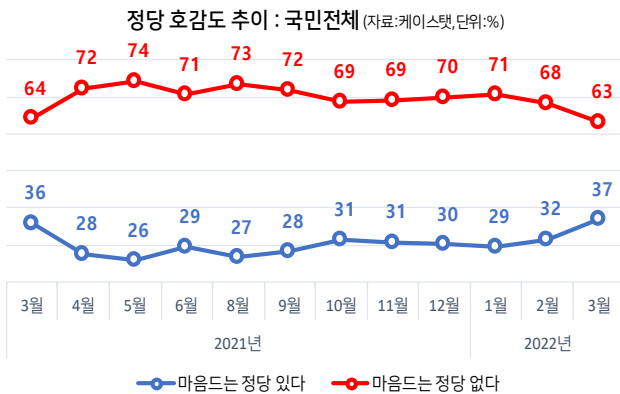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을 표해 온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불만족 의견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남
 - : 이들은 이번 대한민국 방향성,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긍정 응답의 감소 폭이 컸던 계층으로, 대선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 ☑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한 정부 정책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 소식으로 형성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최근 확인되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 정점 시기에 의해 상쇄되며, 정부의 방역 완화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큰 폭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하여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7%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63%로, 두 의견 격차가 좁혀짐
- 계층별로 살펴보면, 특히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중도층 △주부 △은퇴, 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을 중심으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높았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자영업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한편, △남자 50대는 두 의견이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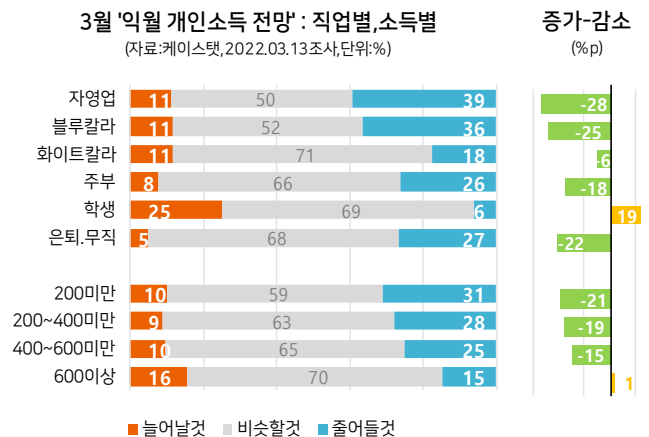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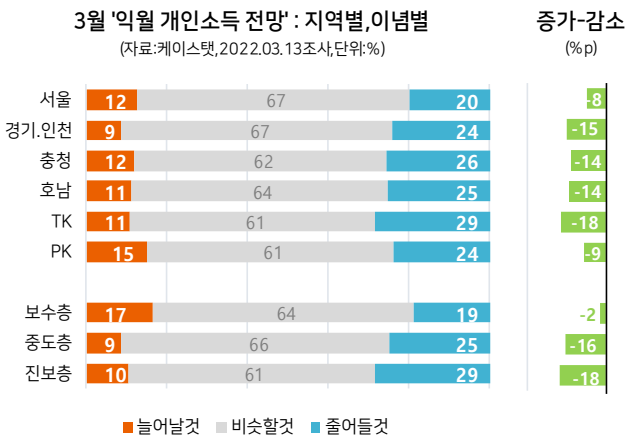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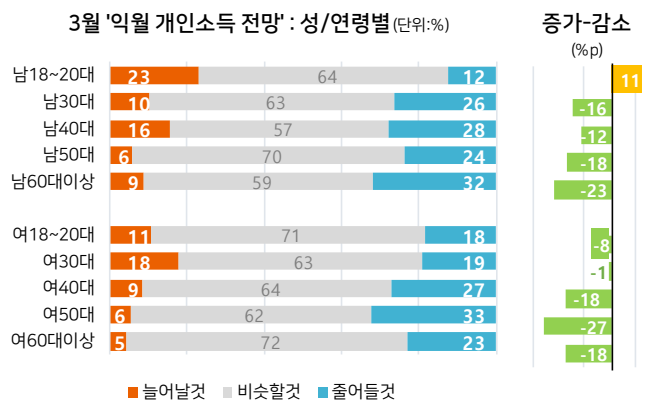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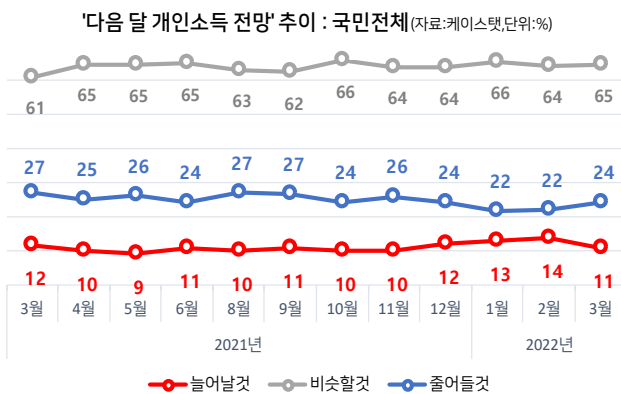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올해 1, 2월 조사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상승했음
 - : 보수-진보 각 진영으로의 결집력이 높았던 20대 대선의 여론지형이 확인되는 지점임
 - : 특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인 PK, 보수층 등에서 긍정 여론이 큰 폭 증가하였는데,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적 전망 상승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의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줄어들 것' 응답은 상승하고, '늘어날 것' 응답은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높아짐
 - '지금과 비슷할 것' 65%, '줄어들 것' 24%, '늘어날 것' 11%으로 조사됨
- 국민 전체 여론에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5%p 감소한 -13%p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소득 하락 전망이 우세함
- '차이'가 플러스로, 긍정적 전망을 한 계층은 △남자 18~20대 △학생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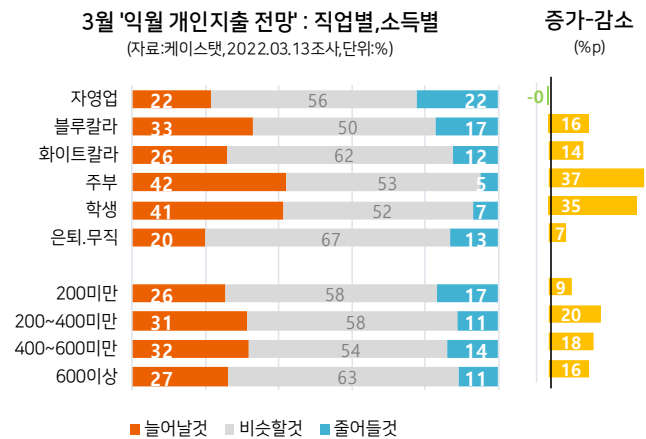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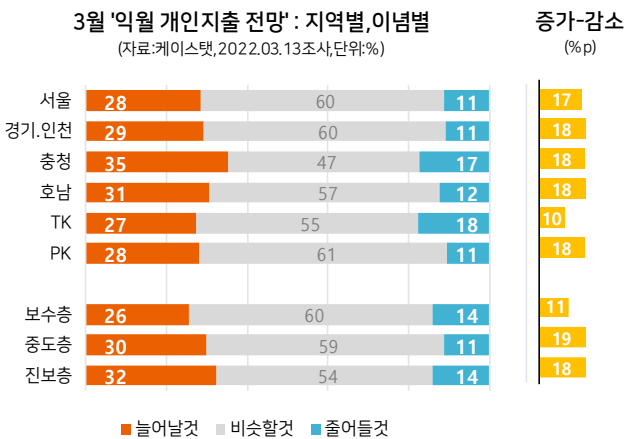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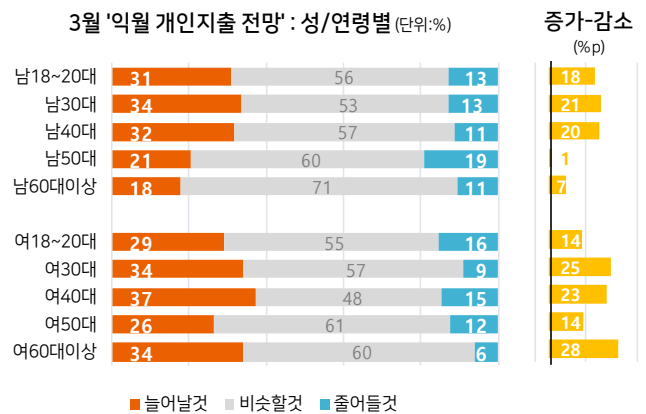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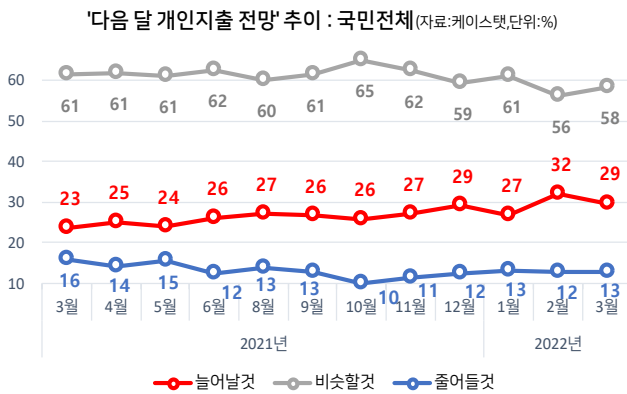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완만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던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한 여론이 3월에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임
 - : 특히 5060세대, 자영업자,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계층 전반에서 소득 감소 전망 의견이 높았음
- ☑️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8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3만 5,168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신호의 일부로서 고무적인 결과가 확인됨
 - : 그러나 경제 성장이 1인당 GNI 상승에 온전히 기여한 것은 아니며, 환율하락, 물가 상승,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점에서 실제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감소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고,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소폭 하락함
 -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전월 대비 2%p 상승한 58%를 기록하고, '늘어날 것'은 29%, '줄어들 것'은 13%로 '늘어날 것' 응답과 '줄어들 것' 차이가 전월보다 4%p 줄어듦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함
 - 자영업자만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50대, 남자 60대이상 △은퇴, 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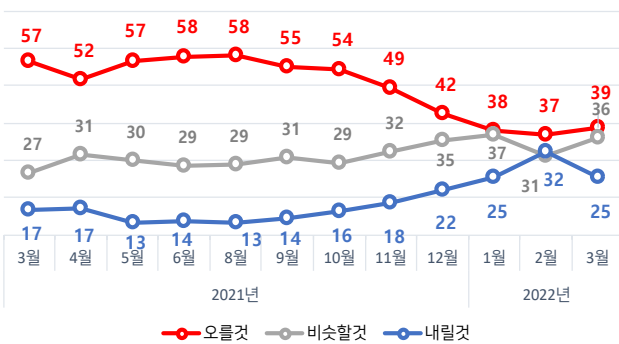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 지출 전망에서도 지출 수준 유지 응답이 증가하며,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맥을 같이 했음
 -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겉지수는 21년 만에 최대치(12.86%)를 기록하고, 슈바베게수(17.94%)도 '20년(18.56%)을 제외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그 배경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황 장기화, 물가 상승, 주택매매가격 등 주거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코로나 시국 속 일상 회복 및 물가 안정 등과 함께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당분간은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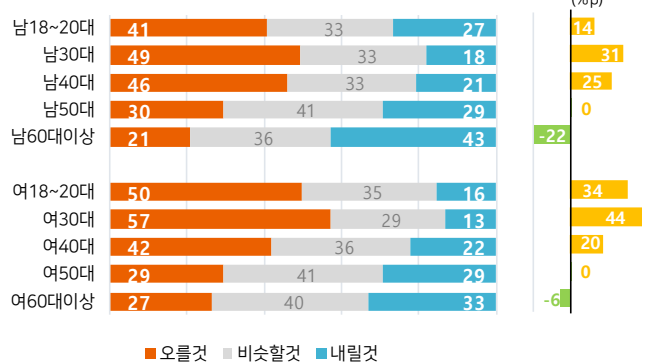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상승세 꺾여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6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지금보다 오를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함
 - 2022년 3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39%, '내릴 것' 25%, '비슷할 것' 36% 순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세 우위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을 특히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여자 2030세대 △호남 △국가 방향 부정평가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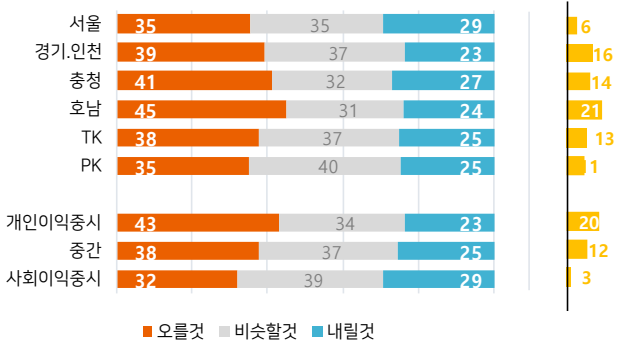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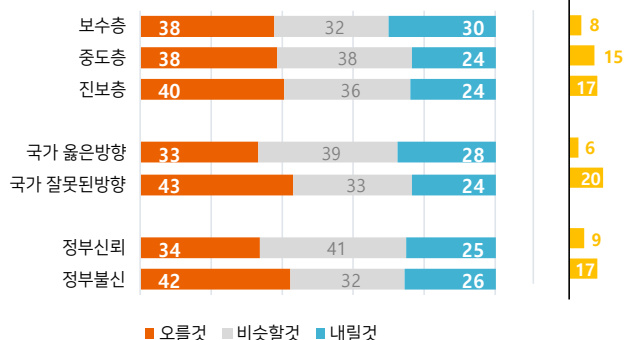
3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성/연령별 (단위:%)



3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3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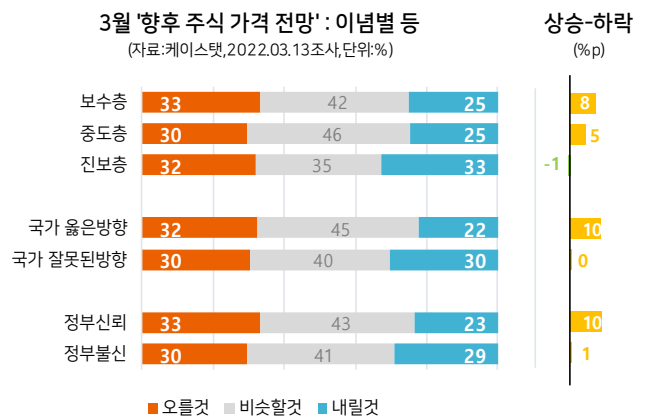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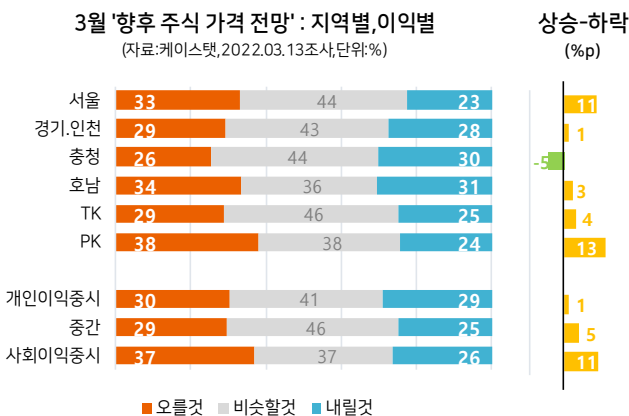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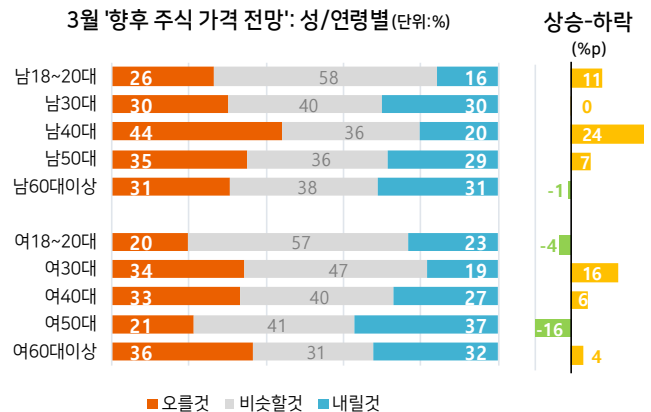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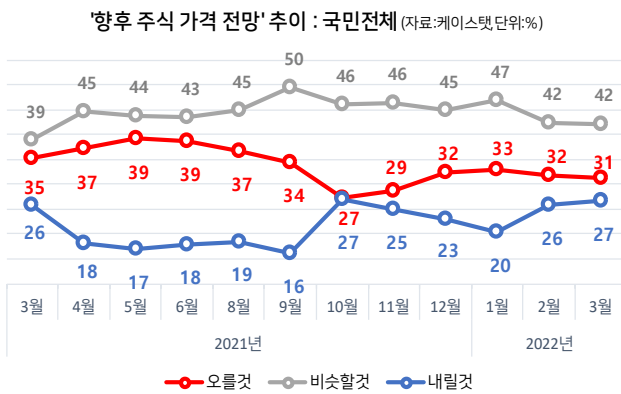


Kstat Point

- ☑ 비교적 뚜렷하게 상승세를 이어온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대폭 하락함
- ☑ 2월 기준, 부동산 실제 거래가와 주택매매 심리지수를 통해서도 이러한 흐름이 다소 포착됨
 - :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로 전월(0.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됨
 - : 또한,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08.5로, 전월에 비해 소폭(2.7p) 상승했음
- ☑ 대선 전 제시된 다양한 부동산 공약과 더불어 대선 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한 국민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으로 보이며, 다음 달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상승세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들어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임
 - 3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2%, '지금보다 오를 것' 31%, '지금보다 내릴 것' 27% 순으로 나타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해 상승 전망이 앞서고 있으나, 전월 대비 상승 전망세가 약화됨
- '차이'가 플러스 수치(상승 전망)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30대 △서울, PK △사회이의 중시층 △국가 방향 긍정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하락 전망)를 보인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충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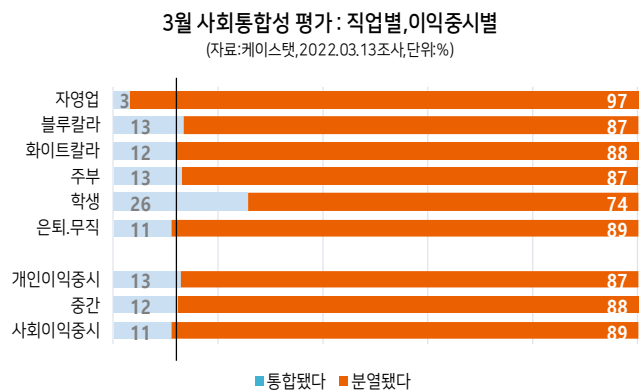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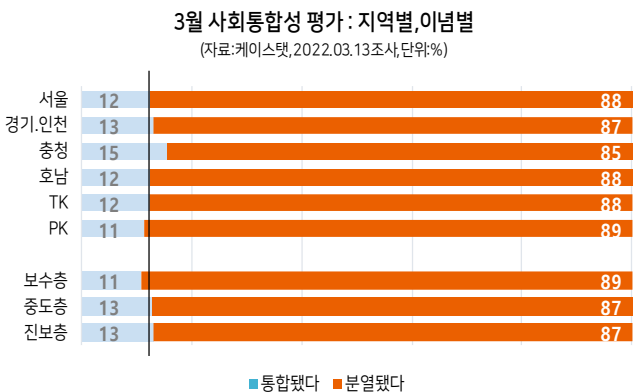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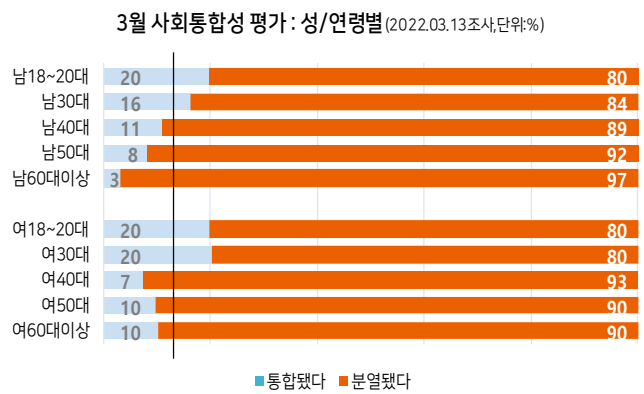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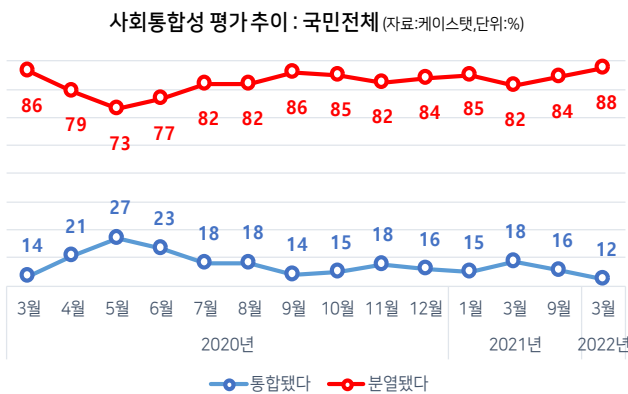
Kstat Point

☑ 3월 2, 3주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유지한 2월보다 감소한 2,600선에 머물렀음
 : 최근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결정이 시장 예상 수준과 일치하고, 파월 의장이 드러낸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등은 코스피 하락 폭을 제어할 수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대내외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증시 회복 탄력성이 크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최고치 88%

- 사회통합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2020년 3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분열됐다’는 응답이 88%로, 전월 대비 4%p 증가하여 여론 악화 흐름을 보임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대, 여자 60대이상 △자영업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통합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충청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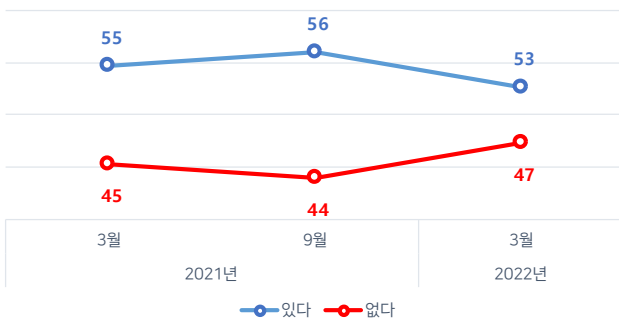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진영 대결이 극대화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 분열 양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점임**
 - : 그간 고착되어 있던 사회 분열에 대한 국민여론이 이번 대선 결과를 계기로 재확인되며, 사회 통합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 :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주요 이슈인 현 정부의 국정 마무리 및 새 정부의 출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지방선거 공천,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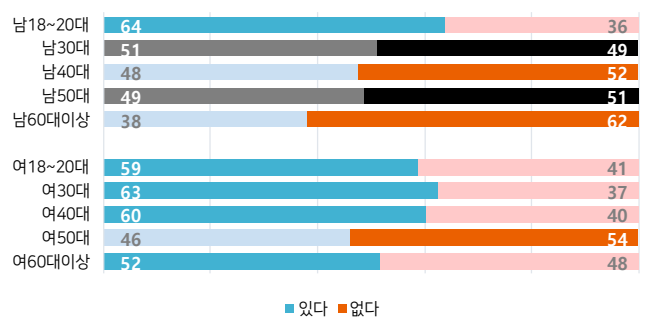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3% vs '없다' 47%

-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는 국민통합을 위한 동인 중 하나로서 중요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없다'보다 높지만, 지난해 대비 '있다'의 우위 정도가 작아짐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 53%, '없다' 47%로 조사됨
 - 지난해 3월, 9월 조사결과 대비 '있다' 응답은 감소, '없다' 응답은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40세대 △진보층 △학생 등임
- 이에 비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대 △자영업자, 주부 등임
 -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대 △서울 △중도층 △블루칼라 종사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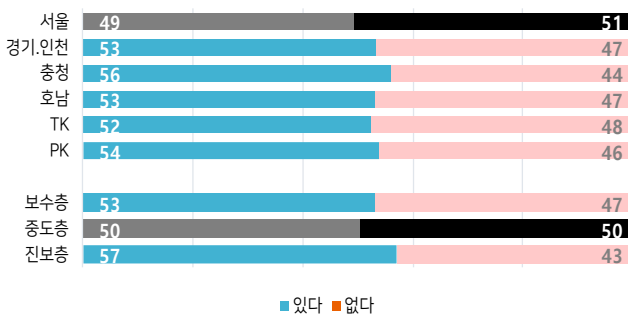


3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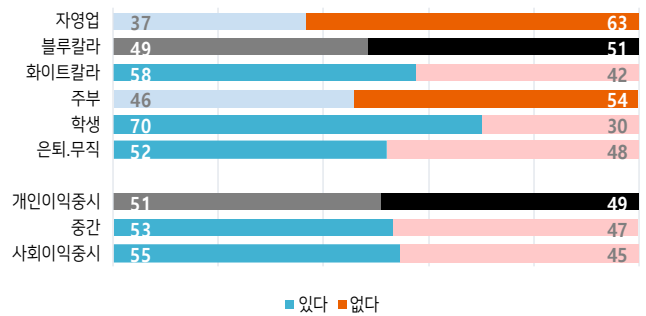
3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3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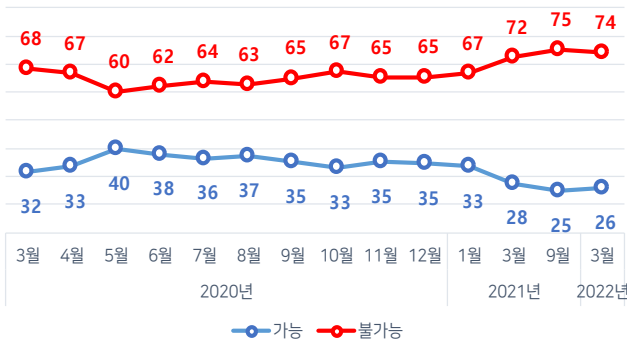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통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이어 보편적 가치 유무에 대한 '비동의' 여론도 증가함
- ☑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 젊은층, 주부 등이 상대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의 '없다' 응답은 큰 폭 증가함
 - :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직격탄을 맞은 계층으로, 정부의 대응책이 자영업자의 요구 및 필요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만든 것으로 보임
 - : 호남, 진보층의 부정적 여론은 이번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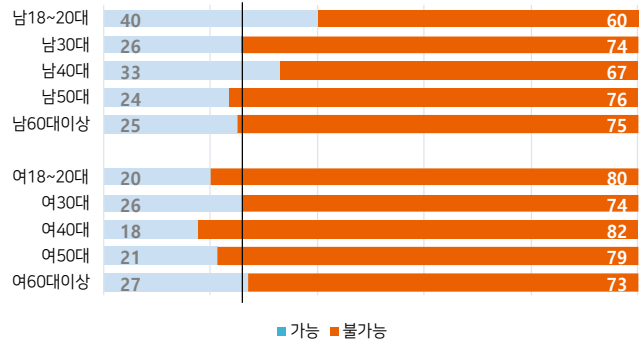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4%

-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과 관련해 '불가능' 의견이 70%대에 위치하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74%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모든 계층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18~20대, 여자 4050세대 △호남 △주부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서울, 충청, PK △보수층 △학생 등임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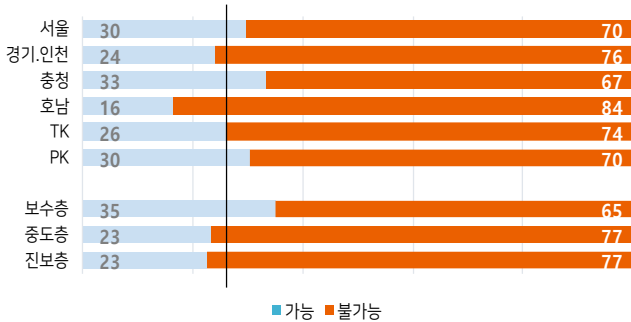


3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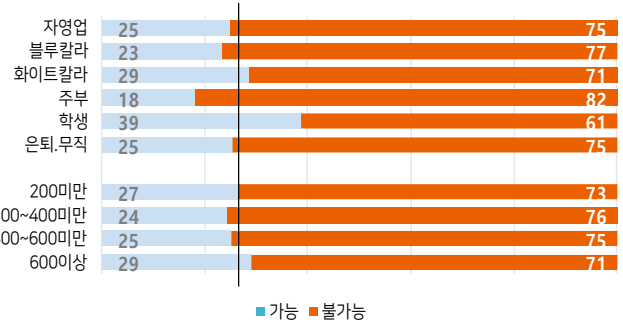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3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Kstat Point

- ☑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 가능성과 관련한 국민여론은 전반적으로 '불가능' 의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갈수록 개인 노력보다는 정치·사회 구조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좌우한다는 국민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코로나19 발발 후 만들어진 신조어인 '벼락거지', '주포자(주택구입포기자)' 등은 부동산, 주식, 코인을 자산 증식 및 계층 이동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음
- ☑ 한편, 이번 3월 조사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 살펴보면, 여자 20대~40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했음
 - : 3월의 전반적 국민여론이 제20대 대선 결과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은 대선 후 이전과 다른 정책 기조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7호는 『대선과정 평가와 향후 한국사회 전망』이라는 주제로 3월 31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